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2000. 6 통권 제66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6
2000
제66호

편집자의 글 _____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의 태동.....3

포커스 _____
남북 문제, 複眼으로 보자 • 권영빈4

특 집 _____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미국의 입장과 북미 관계 • 김창수10
남북한과 일본의 3각 협력 구도 • 남문희17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남북정상회담 • 문홍호25
러시아의 입장과 북러 관계 • 고재남33

특별기획 _____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험41

경협정보 _____
기업 시각에서 본 대북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 • 유원영60

논 단 _____
북한의 전방위 외교 강화 배경과 전망 • 전현준70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 이태섭86

북한트렌드 _____
북한의 비료 사정과 수급 전망 • 권태진102

독자기고 _____
북한의 변화 수용과 남북 관계 • 나정관111

통 권 제66호
등록번호 라-0926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2000년 6월 10일
발행인 김중동
편집인 김주현
편집주간 김경균(정)
홍순희(부)
편집위원 유병규 김선영
이준호 박재일
경오영 황동언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계동 140-2
대표전화 (02)746-1114
F A X (02)3669-4332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2636-0556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제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권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의 태동

본
간

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성사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파급 효과 역시 여러 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사실은 이를 계기로 남북 경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경제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남북 공동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생활권’이란 남북한간 물자·인원·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동질화된 경제권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포커스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집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정상회담과 관련된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강의 입장과 향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이번 호의 특별 기획에는 지난 5월초 본 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개최한 학술 세미나 내용 가운데 제3세션의 종합 토론 내용을 실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상회담이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협 정보는 ‘기업 시각에서 본 대북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현재 대북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의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단은 먼저 ‘북한의 전방위 외교 강화 배경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필자는 전방위 외교의 배경이 개혁·개방 노선 채택이라는 전략 변화에 있다기 보다 정권의 안정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남북 상호간 이익에 바탕을 둔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북 사업을 벤처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벤처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트렌드에서는 최근 북한의 비료 공급 현황, 소요량 추정 및 수급 전망에 대해 현실 감각 있게 서술해 놓았다. 독자 기고인 ‘북한의 변화 수용과 남북 관계’에서는 만약 북한이 내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김정일체제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것이며, 결국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남북한은 관계 개선을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남북 협력은 쌍방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상호주의이며,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0년 6월
편집자